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20호> 2018년 1월 발행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인사】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과장 토쿠노 미츠루(徳野 満)

2017년은 오이타현과 해외와의 교류가 보다 더 활발했던 해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사 및 국회의원께서 오이타를 방문해주시고, 오이타현에서도 아시아 및 유럽, 미국 등을 방문하며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에도 ‘세계온천지 서밋’, ‘브라질 오이타현인회 65주년 기념식’ 등 현내와 해외에서 다양한 국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교류를 통해 활력 넘치는 오이타 만들기로 나아가가고자 합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신년 인사】 오이타현 기획진흥부장 히로세 유히로 (廣瀬 祐宏)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 7월 규슈 북부 호우와 9월 태풍 탈림의 영향으로 현내 각지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오이타현은 복구 및 부흥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한편 오이타현립미술관에서 개최된 특별기획전 ‘지브리 대박람회 ~나우시카부터 마니까지~’가 과거 최고의 관람객 수를 기록한 것과 오이타현외에서 온 이주자 수가 상반기 451명으로 전년도 대비 36% 증가하는 등 기쁜 소식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럭비 월드컵의 시합 일정이 발표되었는데, 오이타에서는 결승 토너먼트를 포함한 강팀들의 대전이 예상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 강호들의 시합을 오이타에서 볼 수 있다는 설렘과 함께 선수들이 실력을 발휘해 멋진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또 관람하러 오신 분들이 오이타의 매력을 느끼고 가실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준비를 진행해나가고자 합니다.

또, 올해 5월에는 세계 유명 온천지의 수장들이 모이는 ‘세계온천지 서밋’이, 10월부터는 ‘국민문화제’, ‘전국장애인예술문화제’가 개최됩니다.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오이타현은 해외 여러분들께도 오이타현의 정보 발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건승과 활약을 기원함과 동시에 올해도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신년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이타현 주목 기사>

플뿌리 교류 프로그램 in 히타

12월 9일~10일, 현내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 가정이 교류회 및 홈스테이를 통해 교류하는 플뿌리 교류 프로그램이 히타시내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교류회에서는 유학생이 호스트 패밀리와 함께 히타의 특산품 게타의 끈을 다는 체험을 하고, 직접 만든 히타 게타를 기념품으로 받은 유학생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홈스테이에서는 가족과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거나 연락처를 교환하는 등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유학생들은 “일본에서의 첫 홈스테이였는데 너무 즐거웠다”, “또 놀러오고 싶다”며 감상을 말했습니다.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20호> 2018년 1월 발행

오이타 속 한국인을 만나다! 오이타현청 관광·지역진흥과 김하나



1.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이타현 관광진흥국 관광지역진흥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하나라고 합니다. 일본에 온 지는 13년이 되었고 오이타에서만 11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2.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나요?

저는 관광·지역진흥과에서도 일본 국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본 분들에게 오이타현을 소개·홍보하며, 관광 팸플릿을 편집하기도 합니다. 전화로 오이타현 관광지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관광 안내, 상담 등의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또 가끔이지만 간단한 한국어 번역이나 한국 동향 조사등을 부탁받기도 합니다.

3. 오이타현에 처음 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원래 오사카에서 여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때 같이 공부하던 외국인 친구들이 생기면서 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공부해보고싶어졌습니다. 그 때 마침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 대학(APU)을 알게 되었고 유학생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APU에 입학하게 되면서 처음 오이타에 발을 디게 되었습니다.

4. 그 때 오이타의 첫 인상은 어땠나요?

버스를 타고 벳푸만 서비스 에리어에 도착해 무거운 짐을 질질 끌며 가는데 눈 앞에 펼쳐지는 벳푸만과 산, 벳푸 시내의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 곳에서 대학 생활이 시작되는구나하며 굉장히 벅찼고 설레는 기분으로 가득찼습니다. 지금도 그 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5. 대학 생활하며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저는 학교에서 태국 빈곤 농촌 지역 아이들에게 교육 지원을 하는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따라 들 어간 동아리지만 1년에 2번은 태국을 방문하며 활동을 해왔고 일본에 돌아와 그 활동을 홍보하며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 이 동아리 덕분입니다. 또 APU의 수업이 오이타의 지역 및 관광과 연계된 내용이 많아서 필드 수업 등을 통해 오이타에 대해 알면 알수록 애정이 생기면서 오이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오이타에 살고싶다는 생각이 든 계기도 이 수업 덕분입니다.

6. 대학 졸업 후 어떤 일을 하셨나요?

대학을 졸업해도 계속 오이타에 남고싶어 오이타 현내에서 취업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호텔에 취직을 했는데 생각과는 다른 업무 내용으로 그만두고 이후 컨소시엄 오이타를 통해 오이타현 관광협회인 투어리즘 오이타에 들어갔습니다. 1년동안 한국 담당 보조 업무를 하며, 올레 코스 조성 업무 등에 참여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올레길을 걸으며 그 때 생각이 나 뿌듯함을 느낍니다.

7. 오이타에서 추천하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처음 오이타 와서 가장 먼저 좋아했던 곳이 벳푸의 칸나와입니다. 온천 증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모습이 제가 갖고 있던 온천 마을의 이미지와는 달라서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다케타와 쿠쥬 지역은 드라이브하기 좋은 곳이고 신불습합(신도와 불교의 융합)을 잘 나타낸 로쿠고만잔(六郷満山)이 올해로 130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쿠니사키반도에도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좋겠습니다.

8. 마지막으로 한국 분들에게 오이타를 소개해주세요.

벳푸, 유후인이 있는 오이타현은 유황천과 탄산천 등 다양한 성질의 온천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에도막부의 직 할지였던 히타를 포함해 8개의 성하마을이 있어 특색있는 문화를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서쪽으로 아소, 쿠쥬 연산의 산악지역, 동쪽에는 잔잔한 세토우치바다와 물살이 거친 분고수도 등 산해진미를 동시에 맛보기도 좋은 곳입니다. 온천현 오이타는 매력도 만점! 오이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